

투데이 칼럼

대인관계 역량 키우기

대인관계에서 언어생활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과의 관계 80%는 언어가 차지한다. 대인관계에서 언어는 핵심이다. 언어생활은 그만큼 중요하다.

"세 치의 혀로 다섯 자의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말은 총부리보다 무섭다.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다.

대인관계에서 말을 함부로 해서 안 된다. 말 한 마디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사례도 많다. 적당함 스피치, 상황에 맞는 스피치, 긍정적인 스피치를 구사하는 것은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대인관계 역량을 키우는 몇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상대방 중심으로 말하자. "말 속에는 인간이 드러나 있고, 글은 '사람'이다"라고 한다. "말은 인격이요, 향수다"라는 말도 있다. 말투를 보고 들으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이미지를 판단한다.

대인관계에서 첫인상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자기주장만 하는 것은 첫인상을 나쁘게 하는 요인이다. "첫인상은 마지막 인상이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듯이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첫눈에, 처음 나눈 대화의 느낌으로 한 선입관이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과의 거래를 결정할 수 있다.

물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고 한다. 첫인상, 첫 마디도 리모텔링 해야 한다. 상대(듣는자)는 말하는(자기)자의 태도나 표정, 시선, 말씨 등을 통해 상대의 인격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가정주부가 "우리집 양반~, 우리집 친정은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자기 자랑만 늘어 놓으면 안 된다.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관심사, 상대의 흥미를 관찰하면서 화제를 만들면 상대는



김 양 옥

전주교대 평생교육원 교수

호응 해주고 좋아한다.

미국 하버드 대학 도남 교수는 상대 분석을 철저히 하면서 대화에 응하기 때문에 누구든 만나면 사람은 탄복한다. 협상의 달인인 미국의 전 대통령 루즈벨트, 지미카터 등도 상대 분석을 잘하여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둘째, 권(論) 아념을 실천하자. 요즘 유행하는 권(論) 경영도 상대에 대한 배려와 분석 경영으로 구성원들이 재미있고 행복해야 교각도 행복하다는 것이다.

기업에서 임금과 승진이라는 외적 보상보다 행복, 즐거움, 공감, 재미를 추구하는 내적 보상을 가능하도록 하여 경영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수평적 대화 채널을 가져 상사와 직사장의 의사 소통이나 스킨십 경영으로 상호 자주 만나 대화하고 생활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일하기 좋은 10대 기업들을 분석해 보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어 있었다. 기업에서도 멋진 도서관, 배낭여행 보조, 문화행사, 연애학 특강 등의 많은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있다.

백만장자 록펠러는 행복으로 가는 3가지를 첫째, 자신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 둘째, 자신이 해낼 수 있는 일에 에너지와 능력을 쏟아 붓는 것,

셋째, 자신을 개발하여 자아 만족하는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했다.

슬로건을 "웃음게 재미있게"라고 결정하여 구성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회사도 있다. 상대 분석을 잘해서 상대가 기분 좋게 '권'과 '스킨십'이 넘으로 생활하도록 하자.

출근만 생각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고 누군가를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잠을 주고 싶은 사람으로 변화야 한다. 문화의 시대는 여성, 즐거움, 아름다움, 감성의 시대라고 한다. 상대방 분석을 잘 해서 관계 역량을 배양하면 대인관계는 잘 된다.

넷째, 삶은 상대일수록 겁근하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만나기가 두려운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과는 대화하기, 거래하기가 힘들다. 그렇다고 피하거나 꺼리지 말고 인내를 갖고 대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은 감성지수(EQ)가 높아야 가능하다. 소크라테스 같은 성인도 약자의 대명사가 된 아테 크산티페에게 찔렸었다.

하물며 우리는 삶은 사람, 상대하기 싫은 사람, 마음에 없는 사람을 상대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마음에 없는 말로 마음에 없는 웃음으로 대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상대를 예쁘고 긍정적으로

로 생각하면서 대화하면 뜻밖에도 좋은 점, 예쁜 점이 발견 될 수도 있다.

감성지수가 낮으면 다른 사람이 항의, 비난, 충고를 하면 바로 맞받아 대드는 말투를 사용한다. 감정지수가 높으면 상대를 인정해주고, 자기 논리를 말한다. 우리는 감정지수가 높은 화법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 다만 우리가 그 문제를 실천하는 데는 @상황이 부족한 것 같으니 @상황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라는 내용으로 하면 상대도 호응하고 내 의도도 풀여 상대를 생각하거나 만날 때 엉터리가 안 된다. 못한다. 쓸데 없는 말, 나쁜 사람 등의 부정어를 앞세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부정어를 사용하면 자신도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넷째, 배려하며 '역지사지'로 생활하자.

가족, 직장, 사회의 각 구성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생활할 때 상대도 좋하게 되고 내편이 될 수 있다. 살기 어렵고 여유가 없는 시간 속에서도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좋은 일에 후원하는 생활을 하며,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상대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면 다투지 않는다. 모든 것을 내 중심, 내 것으로 생각하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마음과 불질을 배풀며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헤아려보자.

덕을 쌓고 존경받는 방법은 첫째, 대화의 방법을 터득하고 둘째,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첫째, 배려와 봉사로서는 것이다. 올바른 대인관계가 이루어져야 건강도 좋아지고 사업도 잘 되고 행복도 누릴 수 있다. 쉬운 것, 작은 것부터 실천 해 보자.

사설

광복회 전북지부 경축음악회

제77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광복회 전북지부 경축음악회]가 지난 8월 11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열렸다. 공연의 주제는 "노래하리라, 작은 풀꽃 하나까지"였다.

이강안 광복회 전라북도지부장은 "애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광복을 경축하며 광복의 기쁨이 전북에 울려 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부 공연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꾸며졌다. 나나네 국악단의 '광복군가'를 시작으로 브레멘레주앙단이 등장했다. 그리고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가 낭송되었다.

노래와 오카리나, 무용이 함께 하며 유대준의 '작은 풀꽃 하나' 창작 노래가 김나연 무용단과 함께 어우러졌다. 윤동주 시인의 '별 헤는 밤' 시 낭송이 진행되면서 비보이가 출현하여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어 '나의 나라' 노래가 랩과 함께 불려졌다. 오세영의

'노래하리라' 시 낭송은 이순하 대북이 이휘의 타악 연주와 함께 했다.

마지막으로 심옥남의 '당신, 수천만 금석으로 모시어도 가 버워라' 시 낭송과 노래가 대미(大尾)를 장식했다. 연출가 여원공연시낭송연구회 유미숙 회장은 "광복절의 기쁨을 도민과 함께 하기 위해 시와 노래와 춤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무대로 꾸몄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은 시 낭송과 노래, 악기 연주자, 그리고 지역의 가수들이 참여했다.

그러면서 고난과 압제를 이겨내고 싸운 항일 독립투쟁을 조명했다. 환난의 시기를 함께 이겨낸 우리 민족의 모습을 그려낸 것이다.

평화와 번영을 이루고 다시 하나 되어 자유와 정의가 지켜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노래했다.

독립정신을 찬양하고 광복의 기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평이다.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지방선거 축하연

최근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전북지원이 제8회 지방선거에 당선된 종친들을 초청해 축하연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전북 발전에 힘을 보태자고 다짐을 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는 이준기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전북지부장, 이상재 전주평화연합 한국공동회장, 황실문화재단 이석 총재, 당선자 등 종친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선과 대한제국으로 이어지는 역사와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전북지원은 이화수 정읍시장, 이정린 전라북도의회 부의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이남숙 전주시의회 의원 등을 비롯한 기초단체장과도·시의원 등 19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이상재 전주평화연합 한국공동회장은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이 함께 협력해 전북의 인구 감소 문제는 물론 문화와 경제

의 융합을 통한 지역 발전 등에 앞장서 전북이 발전하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쓰자"고 말했다.

전주는 '전주이씨' 발상지이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다. 조선을 상징하는 경기관, 조경단, 한우마을 등 문화재를 통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와 예술의 도시가 바로 전주다.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전주 시민은 물론 전북 도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전주시와 살기 좋은 전북 발전에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이 함께 노력하는 일은 역사적 사명이기도 하다.

당선자들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전통문화를 지켜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번 모임은 의미 있는 축하연이 되었다는 평이다.

왕조와 전북 발전을 위한 상생 플랫폼 사업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도민이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 활동을 기대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같이 교실로 가자"



22일(현지시간) 필리핀 피시그 신후안 초등학교가 개학해 학생들이 줄지어 교실로 들어가고 있다.

미 인디애나 주지사 일행과 기념 촬영하는 차이잉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2일(현지시간) 타이베이 총통관저에서 에릭 홀름 미국 인디애나주 주지사와의 만나 회담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Large advertisement for Jeonju Daily featuring a boat illustration and the slogan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 serious journal for humans who give courage and hope).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